

Dynamic impression technique을 이용한 총의치 인상채득



정 창 모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부교수)

- 1984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1987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보철과 수료
- 1992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 1994-1995 미국 UCLA 치과대학 방문교수
- 현재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부교수, 부산대학병원 보철과장

총의치 제작 시 인상채득은 의치의 유지, 지지 및 안정성뿐만 아니라 심미성과 구강조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총의치 인상법은 크게 static impression technique과 dynamic impression technique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static impression technique은 인상 트레이의 relief, 인상재의 점조도, 그리고 가압 정도에 따라 non-pressure (mucostatic), selective pressure, 그리고 pressure impression technique으로 세분되기도 한다.

1960년대 초 tissue conditioner의 개발과 함께 Chase나 Smith 등에 의해 소개된 dynamic(또는 functional) impression technique은 기존 의치에 tissue conditioner를 이장한 후 환자의 기능운동 하에서 변연 형태와 인상면을 함께 채득하는 술식으로, 이러한 동적인 인상은 인상재가 가소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작이나 연하와 같은 기능운동 시 의치에 가해지는 교합력과 주위근육의 운동, 의치의 움직임, 그리고 지지 연조직의 변형의 결과로써 얻어진다.

일반적으로 잔존 치조제가 심하게 흡수된 하악 무치악 환자에서 만족스러운 총의치 치료결과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잔존 치조골 흡수가 진행됨에 따라 지지면적이 감소됨은 물론 주위 근육이

치조정에 가깝게 부착되고, 치조제는 날카롭고 불규칙한 형태로 변해간다. 그 결과 특히 의치의 안정성이 저하되어 외상성 궤양이 호발하게되고 치과의사는 수 차례에 걸쳐 의치 내면의 여러 부위를 삭제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내면 삭제는 단순히 압박부를 제거한다는 의미보다는 정적인 인상면을 동적인 인상면으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록 총의치 치료의 성공이 인상채득뿐만 아니라 교합설계나 연마면의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연자의 경우 이러한 환자에게 기능적인 변연부 확장과 동적인 내면 relief가 가능한 dynamic impression technique을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좋은 치료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재에서는 dynamic impression technique의 개념을 소개하고, 통상적으로 기존 의치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 여러 총의치 제작단계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동적 인상채득방법과 그 장단점을 임상중례를 통하여 같이 생각해보며, 아울러 tissue conditioner의 물리적 성질과 적용방법에 대하여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한다.